

글자에 매달려 풀어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한 지명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4>

3부 오름

(123) 제지기오름

뽀족하게 돌출한 벼랑 오름

한자표기 이전 고유지명엔 접근조차 못 해

서귀포시 보목동에 제제기오름이라는 아트 막한 오름이 있다. 높이가 불과 92.1m 정도로 낮으나 사방이 급경사를 이루고, 일부는 바위가 노출된 낭떠러지다. 요즘 지도에는 '제제기오름'으로 표기되었고, 지역에서는 '제제기오름, 저즈기오름, 제즈기오름, 제제기오름으로 부른다. 1709년 문헌인 탐라지도를 비롯한 고전에 저족약(貯脚岳), 저좌지(貯左只), 저적약(儲積岳), '사악(寺岳)'으로 표기했다. 보목동 마을의 홈페이지에는 '절오름'으로 표기돼 있다.

이 지명에 대해 과거 이 오름에 절지기가 살았었다는 데서 붙은 이름이라거나 오름 모양이 날가리 비슷한 데서 붙은 이름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글자에 매달려 풀어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른 시기의 한자표기를 고려할 때 '저즈기오름' 또는 '저제기오름' 정도로 부르던 것이 나중에 '제제기오름'으로 소리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면서 그 뜻은 모른다고 한다.

가장 오래된 표기 '저족약(貯脚岳)'은 1709년(조선 숙종 35년)에 편찬된 탐라지도에 처음 나온다. 과연 당시 이 지역 일반인들이 '저족약'이라고 불렀을까? 절이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사악(寺岳)'이라고 하지 이런저런 이름을 적어 놨단 말인가? 날가리 모양이라서 '저적약(貯積岳)'이라고 했다면 '노적봉(露積峯)'이나 '노적약(露積岳)'이라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썼단 말인가.

300년 전 부르던 이름 '더리고지'

'저(貯)'라는 글자는 '쌓다, 쌓아 놓다'라는 뜻을 갖는다. '저족'이라는 말은 '즉을 쌓았다'라고 풀어야 하므로 '즉'이 무



제지기오름, 주변 지형에 비해 단연 뽀족하게 돌출된 오름이다. 성섬에서 촬영.



보목 앞바다에서 바라본 제지기오름. 한라산이 막힘없이 잘 보인다.

김찬수

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쌓을 수 있는 '즉'이 무엇이란 말인가? '즉(卽)'이란 글자는 네이버 한자사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①곧 ②이제 ③만약(萬若) ④만일(萬一) ⑤혹은(或-) 그렇지 아니하면 ⑥가깝다 ⑦가까이하다 ⑧나아가다 ⑨끝나다 ⑩죽다 ⑪불뚝 등이다. 이 중 쌓을 수 있는 물건은 없다. 마지막 열 번째 뜻인 불뚝이 그나마 쌓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날가리 모양으로 쌓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저(貯)'라는 글자가 들어간 오름 지명으로 '더리벼리오름'이 있다. 본 기획에서

다른 적이 있다. 이 오름은 저리별이(貯里別伊), 저별리(貯別里), 저성(貯星), 저별약(貯別岳), 저별봉(貯別峰)으로 나온다. 역시 '별(別)'이나 '별(星)'을 쌓는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절울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절'과는 관련이 없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높고 험한 벼랑으로 된 오름'이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저족약(貯脚岳)'과 '절오름'은 바로 '저별약(貯別岳)'과 '절울이'에 각각 대응하지 않을까? 먼저 '저별약(貯別岳)'과 '저족약(貯脚岳)'의 대응 관계를 보자. 두 오름 이름에 나오는 '저(貯)'는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

'저별약(貯別岳)'의 '저(貯)'는 '더리'를 표기한 것이고 '별(別)'은 '벼리'를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저별약(貯別岳)'은 '더리벼리오름'이다. 그렇다면 '저족약(貯脚岳)'의 '저(貯)' 역시 '더리'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리'는 '절'로, '절'은 '절'로 변음하는 것이다.

그럼 '즉(卽)'은 무엇일까? 이것은 '저별약(貯別岳)'의 '별(別)'과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우선 '저족약(貯脚岳)'은 '더리즉오름'이라고 해 보자. '더리'가 '높고 험한'이라는 뜻이므로 '높고 험한 즉 오름'이 된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즉(卽)'은 바로 위에서 제시한 한자 사전의 뜻 중 첫 번째 뜻인 '곧'을 표현하고자 빌려온 글자인 것이다. 국어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훈가자라고 한다. '곧'이란 따로 떼어내 쓴다면 구개음화 현상으로 '곳' 또는 '고지'로 읽힌다. 지명 중 '지(只)'라는 글자는 어조사로서 아무런 뜻이 없다. 그렇다면 '더리즉오름'은 '더리곧이오름'이 되고 다시 '더리고지오름'으로 변음했을 것이다. '저족약(貯脚岳)'이란 표기 외에 '저좌지(貯左只)'라고 하는 표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흔히 '더리고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좌지(貯左只)'란 '절즉이'를 표기한 것이다.

뽀족하게 돌출한 벼랑 오름

이처럼 300년 전 제주도 사람들, 특히 볼레남개 주민들은 이 오름을 '더리고지'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어느 한때 '더리'가 '절'로 줄어들면서 '절오름' 또는 '절고지'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음운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뜻 자체가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서귀포시 서호동 각시바위오름은 지금도 절꼭지 혹은 절꼭지라 불린다. 제제기오름의 과거 명칭 '절고지'와 일치한다. 제제기오름의 고유지명을 보는 듯하다.

'고지'라고 하는 지명의 뒷부분에 나오는 요소는 '곳(岫)'의 한 변이형태다. 즉, '곳+이'에서 파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지형이 불췌 튀어 돌출된 부분'을 말한다. 불췌 튀어 돌출된 부분이란 주로 해안선에 육지가 바다로 돌출된 것을 말하지만 평야에 'ㅁ'형처럼 튀어나온 지형도 포함한다. '절고지'는 보목동, 송산등을 비롯한 서귀포 시내와 신효동, 하효동 일대가 평평한 평야를 이루고 있는데 유독 이 오름이 뽀족하게 돌출돼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제제기오름, 제제기오름, 저즈기오름, 제즈기오름, 제제기오름으로도 부르는 이 오름의 원래 이름은 절이 있어서 절오름도 아니고, 날가리 모양이라서 이름에 '저(貯)'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도 아닌 '뽀족하게 돌출한 벼랑 오름'이란 뜻의 '더리고지' 혹은 '절고지'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주말 감성 선유도 여행

선유도&전주한옥마을&채석강&옥정호
NO팁, NO음선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8시 20분) - 광주공항 도착 - 곡성 기차마을 - 중식(한정식) -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 솔로우 시티 전주 한옥마을 - 석식(불낙전골) - 전주 시그니처 호텔
2일차(일)	조식(호텔조식) - 선유도 유람선 - 중식(꽃게탕) - 채석강 - 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3월 7일, 14일, 21일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359,000원
	3인 1실 기준	355,000원
	4인 1실 기준	350,000원

원주 소금산 케이블카

고수동굴&도담삼봉&초평호 출렁다리
NO팁, NO음선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9시 40분) - 청주공항 도착 - 중식(마늘정식) - 만천하 스카이워크 - 단양 고수동굴 관람 - 도담 삼봉 - 수양개 빛터널 - 석식(떡갈비정식) - 호텔
2일차(일)	조식(호텔조식) - 원주 소금산 케이블카 - 중식(더덕구이정식) - 진천 초평호 미르 309 - 청주공항 출발(19:15)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3월 21, 28일 - 이후 요금인상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359,000원
	3인 1실 기준	349,000원
	4인 1실 기준	339,000원

문의 064-744-9111